사료가격 단계적으로 오를듯……

축산이 어렵다고 배합사료의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 즉 합리적 가격정책을 수행하여 양축가를 보호하려면 소맥분과 같이 가격보상을 하여주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 축산물가격 지지정책을 써서 생산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양축가는 수요에 맞추어 과감히 생산조절을 하여 축산물 가격이 중간 상인에 의해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양축가의 단결된 힘의 과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조 홍 래
〈사료협회 기획부장〉

우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인프레와 식량파동 및 오일쇼크등에 기인한 심각한 불경기를 맞이하여 참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경기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경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책으로 12.7 환율조정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국내 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74년에는 양계업계의 자발적인 생산조절로 양계사육수가 매우 감소하고 달걀과 육계공급력이 상당량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4.10~11월에 들어와서는 양계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볼때 현재 우리고 겪고 있는 물가고와 인프레가 축산물소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양계진흥대책은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눈앞에 닥아올 어려움을 즉시 해결하여야 할 당면 비상대책과 백년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축산식품이 종합식량수급면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식량사정고찰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추세를 보면 전체생산량은 1962년의 5.4백만톤에서 1973년도에는 연평균 3.3%의 증산이 이루어졌으나 이와같은 증산요인은 경지면적의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의 자급율을 보면 과거 10년간 생산량은 연간 3.3%씩 이루어졌으나 소비수요가 5.5%씩 증가하여 생산이 소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양곡수급면을 살펴보면 1962~64년에는 자급율이 83.8%이던 것이 1965~67년에는 90.8%까지 제고되었으나 1968~70년에는 다시 80.7%로 하락하고 1971~73년에는 72.7%까지 하락추세에 있어 부족식량확보가 더욱 중대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식량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는 1961년의 2.6천만불에서 1966년에는 4.3천만불 1971년에는 3.3억불로 급증하여 1975년에는 7.5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부족식량의

증산 및 확보대책의 합리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심지어는 쌀 52만석을 증산하기 위하여 7부도쌀의 공급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결과는 더욱 더 강피류사료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식량소비추세를 보면 선진국의 1인당 식량소비량은 연간 1973/74년의 558kg에서 1974/75년에는 529kg인데 비하여 동남아지역의 식량소비량은 1974/75년에 187kg로서 35%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실정이며 미국사람 한사람이 인도사람 7인분이 식량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비록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나 후진국에 비하여 식량소비가 이와 같이 많기 때문에 식량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동양인 한사람에 필요한 열량은 2,000~2,500칼로리라 볼 수 있는바 세계의 열량소비량을 보면 2,000칼로리도 소비하지 못하는 후진국 부터 3,0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하는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권장량은 대략 2,300칼로리이고 이를 무수물로 환산할때 1인 일당 500g의 식량에 해당되며 연간 182.5kg (1.2석)가 소요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한식구 쌀 한섬이면 족하다는 말과 상통된다. 그러므로 동식물성 식품을 막론하고 2,30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며 3,300만 인구에 필요한 열량은 약 4천만석의 정곡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곡인 미곡으로 3천만석이상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생산목표는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이 1일 일당 97gr의 단백질을 소비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70%에 해당하는 68g를 소비하고 있으며 단백질중 동물성단백질이 미국은 39gr 이상인데 반하여 우리는 30%에도 미달되는 12gr내외밖에 안되며 이것도 수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특히 축산식품의 섭취량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양곡수급계획만을 수립하여 양정의 지표로 삼고 있으나 하루 속히 종합 식량수급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는 영양면에서 단백질공급도 부족하고 칼로리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 할 수록 1인당 수요량이 증가하여 생산이 더욱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수요는 단순한 주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으로 활용되는 축산식품, 수산식품, 채소류, 과실류, 유지류등 총식품공급량의 균형된 수급으로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합식품 수급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첫째로 식량증산기반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부족식량의 합리적 확보책과 세째로 비축식량의 확보 네째로 양곡이외의 광의의 식량증산에 대한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식량증산기반 확립에는 경지면적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 영농기술의 보급과 생산자재인 우량종자비료 농약 및 근대화된 영농장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이루어져 생산기반이 확립되었을 때에 이와같은 제도가 농민의 자발적인 식량증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체위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더욱 축산업을 진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수준의 사료수입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으나 동물성 단백질식품의 중요성과 수급균형 원칙에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1975년도 배합사료수급과 전망

1974.1~10월까지의 배합사료생산실적을 보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총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3%가 증가하였으나 양계용사료는 78.56% (21.44% 감) 양돈용은 99.27%증 (2백증) 낙농용은 61.16% 증 비육우용은 12.25% 증 기타가 9.8% 증이며 용도별 비율을 보면 양계사료가 79.06%에서 60.12%로 19%나 감소되었고 양돈용사료는

10.82%에서 70.87%로 낙농용은 8.04%에서 12.55%를 비육우용은 0.36%에서 4.64%로 기타가 1.72%에서 1.82%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양계사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격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같은 추세를 감안할때 신년도에도 이와같은 추세가 반복되겠으나 양계용사료와 양돈용 사료 생산 비중이 약간 감소할 것이고 낙농용과 비육우용 사료공급량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생산량은 100만톤 수준이내가 될 것이다.

〈표 1〉 '74.1~10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종별	1974				1973		A/B
	1~9	10	계(A)	%	1~10(B)	%	
양계용 육추용	66,430	8,796	75,226	9.91	92,810	12.64	81.06
양계용 산란용	277,023	35,801	312,824	41.26	377,841	51.48	82.80
양계용 육계용	59,947	7,782	67,829	8.95	109,707	14.94	61.83
양계용 소계	404,300	52,479	455,879	60.12	580,358	79.06	78.56
양돈용	139,893	18,328	158,221	20.87	79,401	10.82	199.27
낙농용	81,579	13,543	95,122	12.55	59,026	8.04	161.16
비육우용	28,057	7,149	35,206	4.64	2,656	0.36	1,325.53
기타	12,746	1,119	13,864	1.82	12,623	1.72	109.84
계	665,674	92,618	758,292	100.0	734,064	100.0	103.30

자료 : 농수산부

3. 사료원료 시세

가. 주요사료의 국내시세

1974년도 중 주요 배합사료원료의 서울지방 도매시세를 보면 〈표 2〉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월별로 크게 변동되고 있으며 곡류사료는 생산시기 보다는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 사료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변동되고 있으나 단백질사료와 그밖의 강류사료는 생산시기와 계절별 수요추세에 따라 오르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국산옥수수는 신곡출회 시기가 11월부터 개시됨에도 불구하고 도입 옥수수가격 때문에 11월에 최고 시세를 나타내고 1월에 최저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가격도 도입 옥수수시세에 따라 10~12월에 최고시세를 1월에 최저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단백질사료는 동식물성을 막론하고 3~4월에 최고시세를 7~8월에 최고시세를 나타내고 있어 공급면에서 볼때 단경기이고 가축의 생산계절이 봄철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나. 국제곡물시세

국제옥수수가격은 〈표 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10월말에 최고시세를 나타내어 5월선적 옥수수가격이 $195까지 앙등되어 곡물구매에 어두운 그림자를 한때 안겨주었으나 11.1 현재 작황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5일에는 10월말 이후 최저시세를 나타내어 $178로서 톤당 $17이나 하락하였다가 12월 3일에는 다시 $186.80으로 8$이 앙등되었으며 12.10 현재 $180선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이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료가격이 너무나 앙등되어 축산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축의 방매로 도살두수가 증가하고 사육수가 감소하여 사료수요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며

〈표 2〉

주 요 단 미 사 료 도 매 시 세 표

(단위 : 원/kg)

종별 \ 월별	'74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 균	최고가격 (월)	최저가격 (월)
옥 수 수(국 산)	60	73	72. 10	73	72. 15	71. 50	71. 50	75	75	80	82. 50	80	73. 81	11	1
〃 (도 입)	64. 40	64. 40	68. 40	65. 70	66. 42	66. 42	66. 42	66. 42	66. 42	69. 36	69. 36	69. 36	66. 92	10～12	1～2
밀	59	64. 50	66. 50	69. 50	70	68. 30	71. 50	65. 30	69. 70	75	77	74	69. 19	11	1
밀 세 싣	54	58	63	65	60	60	60	60	62. 80	65	66. 50	65. 59	61. 66	11	1
대 두 박	144. 70	133	127. 70	126. 70	126. 67	126. 50	127	127	127	127	127	127	128 94	1	6
임 박	95. 50	94. 20	93. 80	95	90	83. 50	79	80	82. 20	85	81	80. 50	86. 64	1	7
호 마 박	95. 80	95. 80	97. 70	97	91. 60	83. 50	80	80	82	84	80. 75	80	87. 35	3	7～8
채 종 박	81. 30	83	83. 80	81. 80	79. 50	70. 50	60	47	52	54	54. 25	53. 75	66. 70	3	8
옥 수 수 배 아 박	59	62	67. 30	63. 80	61. 60	60	57	46. 70	57. 50	49	50	51. 67	52. 83	3	8
밀 배 아 박	60	63	68	65	63	63. 80	58	54	52	50	53	54	58. 58	3	10
옥 수 수 구 루 텐	116. 70	117. 50	122. 20	125	118	113. 80	107	102. 20	102. 30	109	113. 30	110	113. 15	4	8
밀 구 루 텐	136. 70	137. 50	140	140	131. 30	128. 80	125	120	116. 70	121	117. 50	130	128. 71	3～4	9
어 분 (상)	146. 70	140	135	140	135	135	120	130	128	128	128. 25	125	132. 58	1	12
(중)	118. 70	117	116. 30	121. 30	116	116. 30	100	103	107. 50	108	110	112. 50	112. 22	4	7
우 모 분	140	140	133	135	133	130	120	117	116. 62	113	108. 33	105	115. 49	1～2	12
번 데 기	130	130	145	150	135	130	130	115	105	113	110	108	125. 08	4	9
양 육 골 분	90	93	110	110	120	110	105	100	98	94	90	83	100. 25	5	12
탈 지 강 (시중)	44. 70	50. 30	55	55	49. 50	46. 30	38	38	41. 20	43	41. 20	39. 75	45. 17	3～4	7～8
맥 강 (시중)	40	47. 50	50. 10	51	48	44	33	39. 50	41. 67	42	40	40	43. 06	4	7
골 분	67. 50	70	70. 70	70	71. 52	70	73. 30	73	73	73	65. 67	70	70. 64	7	11
패 분	6. 87	7	7. 30	7	7	7	7	7	7	7	6. 70	6. 58	6. 95	3	12
해 조 분	50	50	47. 50	47	46. 60	45	36	43	43	47	45	42. 50	45. 22	1	7

동조사기간중 대두박시세도 5월 선적에 톤당 $245에서 $286.20까지 $41의 가격차이가 있으며 소맥은 $205.25에서 $227.29로 $22의 가격차가 형성되고 있다.

〈표 3〉 국제곡물시세 단위 : $톤(C&F)

조사일자	옥수수		대두박		밀	
(선적월)	3	5	3	5	3	5
10. 31	188. 59	195	268. 10	275. 25	226. 56	227. 29
11. 4	187. 80	190. 95	263. 70	269. 24	222. 88	224. 71
11. 8						
11. 15	181. 50	185. 05	252. 50	256	213. 70	213. 33
11. 20	178. 75	181. 90	252. 70	258. 20	212. 59	213. 33
11. 25	175. 20	178. 75	238. 40	245	209. 65	211. 12
11. 28	181. 68	184. 83	256	264. 80	214. 80	215. 16
12. 3	182. 47	186. 80	254. 90	262. 60	215. 17	215. 90
12. 5	180. 90	184. 05	259. 30	286. 20	212. 59	213. 70
12. 6	176. 96	179. 71	256	262	208. 92	210. 39
12. 9	176. 17	178. 14	250. 60	257. 20	204. 51	205. 25
12. 10	176. 57	180. 32	250. 60	258. 30	205. 98	205. 61

자료 : 로이터 통신에서

4. 사료곡물 구매현황

환율조정의 위험성이 지상에 보도되고 수출업계로부터의 강력한 환율인상 요구가 극대화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5월까지 사용할 사료곡물구매를 서둘러 연말까지 전액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서둘렀으나 12.7일 드디어 정부에서는 오일파동과 물가고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경기 부양책으로 환율조정을 감행한 결과 축산경영비중 50~75%에 달하고 있는 사료비의 앙등을 자극하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1975.1~7월까지 사용할 사료곡물현황을 소개하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총구매수량은 250,362톤에 달하고 있으나 종전 환율의 적용을 받는 대상 옥수수는 61,400톤이고 조정된 환율(매도율 485)의 적용을 받는 물량이 188,962톤에 해당된다. 따라서 61,400톤의 물량은 1~2월까지 공급량에 불과하고 잔여 188,962톤은 3~7월(5개월분)까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구매단가는 전기간을 통하여 한국도착 (C&F)에 톤당 $175.24이고 이를 내역별로 보면 1~2월 공급분은 $175.61이고 3~7월 공급분은 $175.06이다. 따라서 원화로 환산하여 서울도착에 1~2월 공급분은 78,400원 수준이고 3~7월 공급분이 93,800원 수준으로 19.7%가 1~2월 공급분보다 비싸다. 그러나 3~7월 공급분중 3개모선분 104,000톤이 계획대로 조기선적되어 입항된다면 적어도 금리부담이 톤당 1,000원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안

〈표 4〉 사료곡물 확보현황 ('75.1~7월 사용분)

품명	묘선명	구매량	단가 C&F	금액	선적	도착예정	적용환율
옥수수	카캐슬	27,260.58	179.50	4,893,180.411	'74.11	'74.12	400 : 1
〃	대폰	34,140.334	172.80	5,889,449.715	'74.11	'74.12	〃
소계		61,400.334	175.61	10,792,630.126			400 : 1
옥수수	하브모이	83,961.832	177.90	6,041,809.913	'74.11	'74.12	485 : 1
〃	매리타임위너	40,000	178.50	7,140,000	'74.12	75.1	〃
〃	매스터스테파노스	30,000	178.65	5,359,500	'74.12	75.1	〃
〃	미정	55,000	171.25	9,418,750	'75.3	75.4	〃
〃	미정	20,000	172.40	3,448,000	75.1~3	75.2~4	〃
수수		5,000	148	740,000	75.1	75.1~2	〃
〃		5,000	150.50	752,500	75.2	75.2~3	〃
소계		188,961.848	175.06	33,080,559.913			485 : 1
계		250,362.224	175.24	43,873,190.039			

다.

5. 환율인상과 배합사료 가격

가. 사료곡물구매가격의 앙등

1973.12. 제3차 배합사료가격 인상시 계산된 옥수수가격 톤당 $145.17에 비하여 20%가 비싼 $175.24로 앙등되었다.

나. 환율인상이 원료가격 생산비에 미치는 요인

1) 1~2월 공급 옥수수 : 톤당 78,400원수준
2) 3~7월 공급 옥수수 : 톤당 93,900~95,000원 수준
3) 소맥분가격과 소맥피가격조정 여부 시기 및 인상폭
4) 정부관리양곡부산물 판매가격의 조정여부와 인상시기
5) 도입대두박 (동박유량, 대두박) 가격인상 시기 및 인상폭
6) 타피오카 가격폭등과 수입곤란 ($105에서 $115~120로 앙등)
7) 기타 국내 부원료가격상승
8) 가공비와 경영관리비의 가중부담
가) 전기료금과 유류가격의 인상(수송비, 가공비 부담증가)
나) 물가고와 인프레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인상 불가피(30% 수준 추정)

다. 영업세율의 인상실시

'75.1.1부터 영업세율이 현재 $\frac{5}{1000}$에서 $\frac{10}{1000}$으로 0.5% 인상됨

라. 제3차 가격사정시의 적용기준 불합리

1) 옥수수 가격사정

CIF 가격의 5%만 경제기획원이 인정하였으나 국무총리기획조정실 평가 교수단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도착 기준가격은 C&F 가격의 12%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고하며 $100 이하로 싸고 부피가 큰 물품이면 12% 이상이 실지 소요되고 $170 이상이면 12%이하의 경비가 실지 소요됨.

2) 적정이윤 적용의 불합리

국세청의 과세소득표준을 보면 배합사료 제조업의 과세소득표준이 4%로 지정되어 있으나 가격사정시 2%를 계속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평가 교수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4%로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소득표준에서 49.5% (비법인 60.5%) 해당액을 소득세로 사료공장이 실지 부담하기 때문에 현실화하여 주어야 한다고 함.

가. 가격대책과 전망

환율인상후 사전승인품목인 58개품목에 배합사료가 해당되지는 않으나 주무부장관의 양해사항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축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막대한 외화를 드려서 수입한 사료로 가공된 것이므로 배합사료 가격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낙찰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축산업을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적정 원가를 무시한 배합사료가격 형성은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축산이 어려우니 배합사료가격을 낮추라는등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합리적 가격 정책을 수행하여 양축가를 보호한려면 소맥분과 같이 가격보상을 한여 주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축산물가격지지정책을 써서 생산비를 보장한여 준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한다.

첫째, 배합사료가격 조정은 원료구매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1월초와 3월초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첫째 원가를 외면하는 무리한 가격억제로 사료의 품질을 저하시켜 오히려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갖어오게 된다면 양축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료메이커에게 적정이윤이 추구되어 고용증대와 납세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정이윤이 보장될 경우 사료메이커는 이윤의 일부는 반드시 거래 양축가에게 직접 간접으로 환원시켜주어야 한다.

넷째, 가격전망

① 시기적으로 보아 1~2월에는 산란계사료에 옥수수 50%를 배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옥수수가격이 20% 상승하였으므로 10%의 원가상승을 갖어올 것이다.

② 3~7월에는 1~2월에 비하여 환율변동으로 옥수수가격이 약 20% 인상되므로 10%의 가격차가 생길 것이다.

③ 가공비 및 경영관리비를 현실화할 경우 3%의 가격차가 생긴다.

④ 적정이윤이 국세청의 과세소득표준에 근거를 둔다면 2%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⑤ 영업세가 $\frac{5}{1000}$에서 $\frac{10}{1000}$으로 1월부터 적용되므로 0.5%가 인상된다.

⑥ 국내 단백질사료가격이 73년도 3차가격 인상시보다 약간 하락추세에 있으나 도입옥수수가격 산출에서 모순(CIF 가격의 5%만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수준이하에 있다.

⑦ 이와같은 요인을 감안할때 소맥피나 정부관리양곡부산물 가격조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요인을 고려에 넣지안는다 하여도 1~2월에는 15~16% 3~7월에는 약25% 수준의 원가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⑧ 그렇나 이와같은 계산은 개략적인 예시이고 서울지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거나 또는 항구지역의 사료공장 또는 일부 부원료를 자체조달하는 메이커가 있다면 상당한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⑨ 또한 신년도에 배합사료수요량이 늘지않을 경우 사료메이커에 심한 판매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덤핑으로 판매가격은 최저수준까지 인하될 수도 있겠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축산경영의 안정을 기하여 축산업을 진흥시키려면 단기대책으로서

첫째, 양축업자는 불량축에 대한 과감한 도태를 감행하여야 하며 각 축산단체는 생산조절계획을 수립하여 양축가에게 이를 주지 실천시키고 또한 소비자에게 축산식품의 가치와 이들 축산식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주지시켜 소비의 적정책을 강구하고 정부는 축산물의 비축자금을 지원하여 체화물량이 단기적 조절을 단행함으로서 가격의 폭락을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둘째 세무면에서 가능하다면 계육, 계란 돈육 및 우유의 전문판매점과 음식점은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1975년 6월까지 단기간이지만 영업세를 전액 면세조치함으로서 축산식품의 배분범위를 확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촉진을 기하여 생산물의 체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배합사료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자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체구매 토록 하되 사료의 자급도 제고를 극대화하여 외화의 절약과 사료비 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양계협회나 축산단체연합회는 최소한 적정생산비로 계절별로 조사하여 축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경영면에서 안정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또한 축산진흥의 장기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농수부나 축산단체 연합회에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량종합수급계획에 있어서의 균형있는 축산물의 수요추정과 진흥방향의 결정 우량가축과 품종의 선택 및 종축확보와 도입방향, 사료수급대책 방향과 자급도 제고 및 부족사료대책, 축산물의 유통개선과 축산물가격 유지책 및 가축방역과 위생대책등 일련의 시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진지하게 단계적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느껴진다. ▩

6. 종합대책